

전북, AFC 챔스 8강 비셀 고베와 대결

대진 추첨 결과... 오늘 오후 4시 사이타마서 단판승부

프로축구 전북 현대가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비셀 고베(일본)와 상대한다.

전북은 지난 20일 열린 2022 AFC 챔피언스리그 8강 대진 추첨 결과, 비셀 고베와 준결승 진출을 다투게 됐다.

단판승부로 22일 오후 4시 일본 사이타마현의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열린다.

전북은 지난 18일 대구C와 16강에서 연장 접전 끝에 2-1로 승리하며 8강에 올랐다. K리그 구단 중 유일하게 생존했다.

비셀 고베는 이번 시즌 일본 J리그에서 18개

구단 중 16위에 처져 있으나 16강에서 선두 요코하마 F.마리노스를 3-2로 꺾으며 이변을 연출했다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의 미드필더 안드레 이니에스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득점 기계 무고사가 활약 중이다.

한편, 우리와 레즈(일본)는 BG 빠툼(태국)과 준결승 진출을 다툰다.

AFC 챔피언스리그는 동아시아 권역에서 결승 진출 팀을 가리면서 아시아아 결승 진출 팀과 우승을 다투는 방식으로 열린다.

/뉴시스



전북지역 레슬링 감독들이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다. 사진은 주니어 국가대표 레슬링 선수단이 불가리아로 출국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원광대 김성태·전주대 김윤호 레슬링 주니어 국대 감독 선임

세계 주니어 레슬링선수권 출전 도내 선수로 박주빈·오민서 등 참가

전북 레슬링 감독들이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임됐다.

전북체육회에 따르면 원광대학교 레슬링부 김성태 감독과 전주대학교 레슬링부 김윤호 감독이 주니어 국가대표 감독으로 선수들을 이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 세계 주니어(U20) 레슬링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최근 불가리아로 출국했다. 이에 김성태 감독은 자유형 감독으로 김윤호 감독은 그레코로만형 감독으로 각각 선수들을 지도·관리하게 된다.

한편 도내에서는 원광대 박주빈과 전주대 오민서·윤동현 선수가 이 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손흥민에 인종차별한 첼시 팬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

손흥민(30·토트넘)에 인종차별을 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첼시 팬이 무기한 경기장 출입금지 징계를 받았다.

첼시 구단은 21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주 토트넘과 경기에서 인종 차별을 한 팬의 신원을 확인했다. 이 팬에게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손흥민은 지난 15일 영국 런던의 스탬포드 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경기 도중 관중석의 한 첼시 팬으로부터 인종 차별을 당했다. /뉴시스

전북 검토, 전국대회서 '두각'

전국학생대회서 銀 1·銅 획득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는 최근 익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제5회 전국학생검도대회'에서 도내 검도선수들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등부 단체전에 나선 정음준은 조치원중과 해룡중 원봉준을 차례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지만 아쉽게 성남중에게 2대 3으로 석패, 준우승을 차지했다.

고등부 단체전 경기에서는 익산고가 준결승에서 만난 성남고에게 2대 3으로 패해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한 익산고 유건이(3년)는 뛰어난 집중력과 경기력을 발휘했지만 아쉽게 준결승에서 과천고 선수에게 패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전북검도회 임영석 회장은 "우리 선수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며 "전북 검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김제벽골제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성료

전국 동호인 1200명 참가

지난 20일부터 2일간 김제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회 김제벽골제배 전국오픈 탁구대회가 많은 동호인들의 열띤 경쟁 속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김제시탁구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전국 탁구동호인 1200여명이 참가한 생활체육 축제로 참가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통해 개인과 단체의 우승을 목표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김제시탁구협회는 "제1회 대회인만큼, 참가

선수들이 맘껏 즐기고 기량을 펼치 수 있게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며, "대회가 코로나19로 움추려 들었던 생활체육의 열기를 다시 타오르게 하는 계기가 되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일상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을 지원·육성해오고 있다"고 전하며, "이후에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전국규모 스포츠 대회와 전지훈련을 적극 유치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내년 군산서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열린다

올 개최지 창원서 대회기 이양... 내년 8월 중 개최 종목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카트라이더 등 3개

오는 2023년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가 군산에서 열린다.

군산시는 20일과 21일 경남 창원에서 개최되는 '제14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에 참가해 오는 2023년도 제15회 전국 결선 개최지로 대회기를 이양 받았다.

21일 대회기 이양식에는 황철호 군산시 부시장이 대표로 참석해 대회기를 이양 받았으며 제15회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2023년 8월 중 개최될 예정(장소 미정)이다.

군산은 당초 2022년 대통령배 e스포츠 대회 유치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제14회 대회는 올해 창원에서 군산으로 1년씩 순연개최 결정됐다.

시는 이번 대회 개최와 함께 지속적인 e스포츠 관련 시설 및 행사 유치 등 e스포

츠 산업육성을 위한 기반을 다져나갈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스포츠협회,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프 로게이머 등용문인 대통령배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는 각 지역별 대표 선발전을 거쳐 선정된 선수들이 참여하는 결선 경기다.

e스포츠를 통한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 정착 및 관련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비박한 한 여가 문화 선도 및 지역 e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문화 융복합 행사다.

대회 종목은 리그 오브 레전드(5인 팀전), 배틀 그라운드 모바일(4인 팀전), 카트라이더(개인전)의 3개 종목으로 종합우승 지자체에는 대통령상이 수여되고,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장·장관상,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이 수여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하세요.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